농림축산검역본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1.(월) 11:00 배포 2025. 12. 1.(월) 09:00

K-축산물 글로벌 시장 진출, 검역본부가 함께

- 검역본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13차 축산물 수출검역지원협의회 개최
- 수출검역 협상 추진, 원료 사용 규제 완화 등 업계 요청사항 집중 논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11월 28일(금)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단체, 수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역본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삼계탕, 유가공품, 사료 등 5개 분과 위원회별로 수출업체와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으로 축산물 수출 확대, 해외 신규시장 개척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및 업계 관계자 33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도 국내 축산물 수출 실적*과 주요 수출협상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 등 국내외 수출 여건 상황과 수출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반려동물 사료 등 약 11.2억 불 수출('25.10월 기준 전년 대비 15.7%↑)

주요 논의 내용은 **①상대국 수입 조건 완화, ②쇠고기 수출을 위한 원료 사용 규제 완화, ③수출 가능국 확대를 위한 협상 요청** 등이며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황성철 동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수출검역지원협의회 사진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54-912-0416)
		담당자	사무관	정혜선 (054-912-0420)

붙임 | **수출검역지원협의회 사진**



협의회 진행 사진



단체 기념사진